

낙농가의 소리 ②

현 낙농산업의 문제점 해결되어야.....

윤 민 호
전북 남원시 하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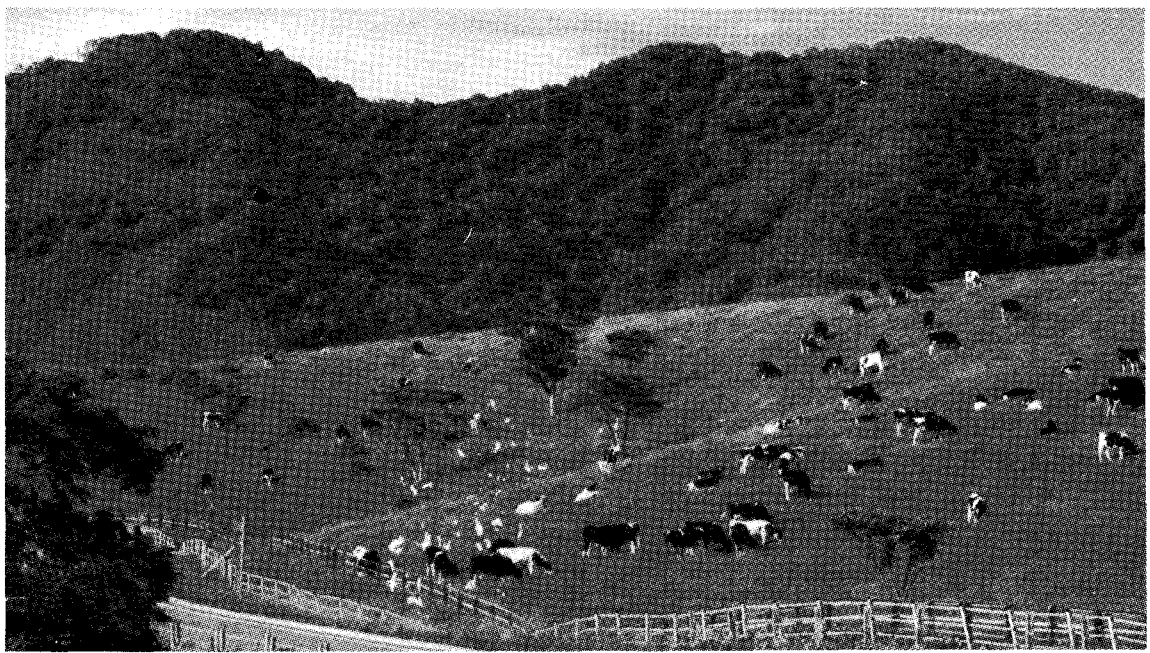
최근 우리 낙농업계는 심한 불황의 늪속에서 헤매고 있다.

원유대를 어음으로 지불 한다든지 분유나 시유로 지불 한다든지 신규 농가의 우유는 납유를 거부한다 든가 또는 납유량을 전년도 평균유량으로 국한 한다 든가 아니면 아예 원유의 집유가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다다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의 원인은 다 알다시피 소비의 위축에 따른 현상이 근본적 원인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대체로 누적된 분유를 정부에서 구매해서 처분해야만 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 방안으로 이야기 되고 있으며 농가 또한 지금의 착유우를 도태해서 착유두수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말하여 지고 있다.

또한 유업체나 농가는 홍보를 통해서 우유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위와같은 해결방안은 다 옳고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또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법론으로 해결의 대책이 세워진다면 지금의 우유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짧은 낙농의 역사속에서도 우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똑같은 해결 방안을 들고 나왔고 또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서 오고 몇 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에 또 부딪혀 왔다.

이러한 파동이 반복되어 오면서 우리 낙농업은 커왔으며 절대적 생산량을 늘려 왔었다.

그러나 이번의 파동과 앞으로 올 파동은 간단 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소비량의 증가는 이제 완만한 곡선을 그릴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 생산량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또한 수입개방의 압력은 점차 거세어지고 있어 결국 개방쪽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논리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같이 어려운 시기 일수록 단기적 측면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낙농문제를 재검토 해보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책을 강구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우유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낙농가들이 나아 가야할 부분을 저해하는 부분에서 해결책이 찾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90년대의 우리나라 낙농이 나아 가야할 방향은 생산원가를 최대한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낙농업 자체의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체제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지금과 같은 영세규모에서 벗어나 농가당 평균두수를 적어도 30두 내지 50두 정도로 확대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유파동이 올때마다 우유 유통이 어떻게 집유가 어떻게 하고 떠들다가도 이 파동이 가시면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나 하고 잊어버리는 오류를 우리는 되풀이 해 왔다. 우리는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우리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하고 차분하게 논의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의 개량이나 사양기술의 개선 사료의 개선을 통하여 두당 평균유량을 년 8천kg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사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낙농의 존립형태를 전제로 한 가운데 지금의 낙농문제를 이야기 해야 할 것이고 낙농문제의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유파동이 올때마다 우유 유통이 어떻게 집유가 어떻게 하고 떠들다가도 이 파동이 가시면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나 하고 잊어버리는 오류를 우리는 되풀이 해 왔다. 우리는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우리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하고 차분하게 논의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낙농문제는 낙농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업을 해야 할 것인지 방황하는 낙농가 차원이 아닌 낙농을 천직으로 알고 낙농을 할 수 밖에 없는 진정한 낙농가의 편에 서서 낙농업에 관한 모

든 정책 및 대책이 세워져야 하고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몇가지의 원칙을 전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몇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유가 남아 돌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해결책으로서 제일 먼저 들은 것이 젓소 십만두의 도태 이야기였다.

도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부수적 이야기가 없는 가운데 젓소가 줄면 우유가 적게 나오고 우유가 적게 나오면 우유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닌가 하는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이런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오십두 이상의 농가는 등록을 해야 한다는 축산법 시행규칙의 제정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우유의 과잉 생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만 가까운 낙농가들이 공히 두마리씩의 젓소를 도태시켜가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될 것이며 전업화 전문화의 길을 갈수 없고 영세농을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는 길을 모색 한다든가 아니면 낙농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농가의 전업을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이 선행되는 가운데 두수의 축소 문제가 논의 되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는 사만여 전체 낙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서 전적으로 낙농에 전념 할 수 있고 전업화 전문화의 과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농가를 선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규모를 갖춘 낙농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축협의 개량사업소에서만 생산해오던 젓소의 정액 생산체제를 재정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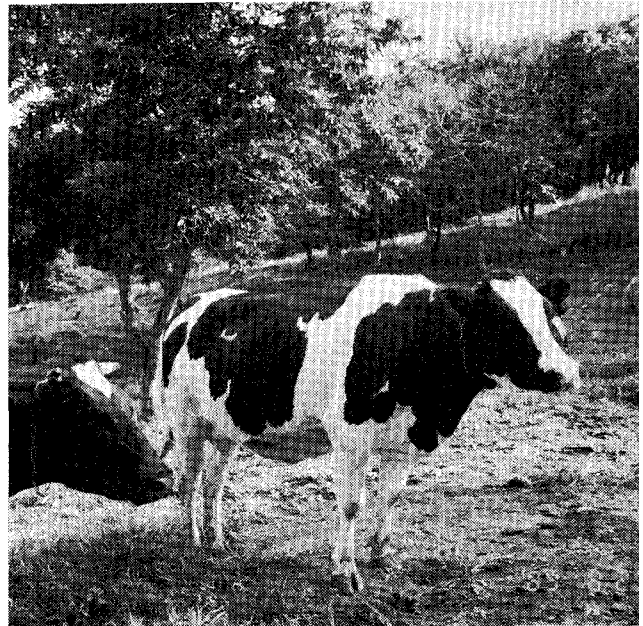
거의 젓소의 수정을 인공수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소의 개량이 담보 상태를 거듭하거나 미비한 전진이 있어 왔다는 점이다. 이제 정액 생산체제를 농민의 희생의 바탕위에서 성장해 왔던 재벌기업의 농촌 환원사업 차원이나 정부의 농촌투자 차원에서 종모우의 생산이나 도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액

생산체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료체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사료 문제는 크게는 가격에 관한 문제이며 그 다음은 사료의 질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대해 정부에 끈질기에 이야기 하며 요구했다.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우리 양축가들이 쟁취 해야될 가장 우선적인 문제중의 하나이며 사료 곡물의 수입창구의 다원화와 사료의 자가배합의 허용에 의해 사료 가격은 내려 갈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젓소의 평균 유량이 6천kg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현 배합사료의 질에 기인하는 원인도 크다 하겠다.

우선 사료의 자가배합에 대한 기술을 제공 해줄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지도기관이 존재해야 하고 시판되는 배합사료의 품질검사가 완벽하게 될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며 실제적 유량을 올려줄수 있는 사료가 나올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촉진 되어져야 하고 중



간 생산재인 사료를 최종 소비재인 양 취급해서 묶어 둔 사료의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지정 또한 취소 되어야 할 것이다.

사료부분은 권력과 재계가 유착된 표본적인 부분으로써 이제 정부는 정경유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 축산인의 입장에서 축산물의 원가를 낮추어 줄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낙농 자재의 연구 개발 등 시설의 현대화가 뒤따라야만 참다운 낙농산업이 균형있게 발전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우리 낙농산업의 문제의 해결점을 정리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분유수매를 통한 분유재고의 소진과 소비홍보를 통한 우유 소비의 촉진 등 당장의 문제 해결책이 나와야 하겠고

장기적 정책으로는 전업화 전문화로 갈수 없는 영세농의 전업 대책이 선행 된 가운데 낙농업의 규모 확장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하며 사료의 영세율 적용등 사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과 젖소의 개량사업의 근본적 재고가 이루어 져야만 할 것이고 낙농 기계화에 따른 지원사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요즈음 문제되고 있는 분뇨문제와 유제품의 국내 유통창구의 일원화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 해결점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우리 낙농가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보고 우리 자신들을 재정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민주화의 길로 가면 갈수록 각 이익집단의 이해와 이익은 그 집단의 조직력 재력 또한 리더의 리더쉽에 크게 좌우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년여 동안 이 나라 낙농산업의 가장 기로가 될 낙농 진흥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각지에 따른 조그마한 이해관계와 개인에 따른 이

해 관계에 얽매어 우리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우리들의 힘을 반감시켜 왔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불황에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분유수매에 매달리고 유가공업체의 이익을 우리 낙농가들이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가공업체의 횡포에 속수무책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이 어려울 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보고 우리들의 체계를 재정비 하고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으고 우리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하겠다.

다행히도 그동안 열화와 같았던 낙농협동조합 운동은 우리 낙농가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낙농가 들이 업종별 조합인 낙농협동조합에 참여하고 낙협이 없는지역은 낙협을 결성해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낙농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우리는 낙농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농에 따른 기술문제나 자재의 공동 구매 또한 가공업의 참여에 따른 부가가치의 창출 등 우리는 낙협을 통해서 이런 문제의 해결은 기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정치성에 배제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정치성이 배제된 가운데 우리들에게 크게 유리한 방향을 기대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정치성의 문제를 바로 낙농육우협회가 해결해 나갈때 우리는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정부의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근시안적인 작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보다 넓은 안목에서 문제에 접근 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낙협을 하루 빨리 육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정책적인 측면의 해결을 위해 협회를 강화 시키고 조합과 협회가 유기적 연관을 가지고 이 나라의 낙농업을 주도 할 때 이나라의 낙농업은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